이동욱, 아시아 팬미팅 현장 실시간 공개

연기자 이동욱이 팬미팅 현장의 일부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동욱은 아시아 팬미팅의 첫 번째 장소인 서울 공연을 앞두고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V앱 채널을 개설했다.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티켓 매진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한 이동욱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1997 가수들, 설레는 데뷔 20주년 프로젝트

〈1997년 데뷔〉

젝스키스·S.E.S 등 20주년 기념 음반
NRG·베복 재결성 혹은 한시적 결합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는 그룹 베이비복스는 재결합을 꿈꾼다. 그들과 '데뷔 동기'인 S.E.S는 다시 뭉쳐 성과를 거뒀다. 양파도 20주년을 기념하는 작업에 한창이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스포츠동아DB

지난해 젝스키스와 S.E.S가 재결성해 큰 화제를 모으면서 '1997년생' 가수들이 새삼 가요계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에게 올해는 '데뷔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여서 이를 기념하는 움직임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을 전망이다.

젝스키스와 S.E.S를 비롯해 1997년 데뷔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가수로는 김현정, 베이비복스, NRG, 지누션, 디바, 양파, 박혜경, 박지윤, 유승준 등이 있다. 이들 중 박지윤과 박혜경은 얼마 전 새 음반을 내놓고 활동에 나섰다. 그 외 올해 20주년을 기념한 신작을 예고한 가수들은 젝스키스와 베이비복스, NRG, 양파, 김현정 등이다.

NRG와 베이비복스는 재결성 혹은 한시적 결합을 예고하고 있다. 원년 멤버 중 문성훈을 제외한 이성진·천명훈·노유민은 작년 10월 팬미팅을 열고 "데뷔 20주년에 새 음반을 내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복스 간미연은 1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멤버들과 재결합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올해가 20주년이어서 뭔가 있을 거 같다"며 재결성을 예고했다. 작년 리메이크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벌인 젝스키스는 오리지널 신곡을 담은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댄스와 발라드 시장을 각각 이끌었던 양파와 김현정은 20주년에 긴 공백을 끝낸다. 작년 '보디가드'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한 양파는 3월 초 작품이 끝남에 따라 현재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정규 음반은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2011년 싱글 '1분1초' 활동 이후 연기자 변신, 담석 수술 등으로 가수로서 긴 공백기를 가졌던 김현정도 올해 음반, 공연 등 다양한 20주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1997년생 인기가수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유승준이지만, 의욕적인 활동을 준비 중인 동기들과는 분위기가 딴판이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된 그는 강렬한 '몸부림'으로 20주년을 맞고 있다. 한국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싸늘한 여론 속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상소를 준비 중인 그는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에겐 한평생 잊을 수 없는 20주년이 될 전망이다.

1990년대 후반은 가요계 황금기로 꼽힌다. 댄스음악과 발라드,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공존하고, 음반시장의 활황으로 인기가수도 넘쳐났다. 당시 데뷔해 전성기를 누린 가수들이 20주년을 맞아 재도전에 나서는 모습도 그만큼 다채롭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한채아의 번복 "차세찌와 사귄다"

열애설 부인 일주일만에 연인관계 인정



한채아

연기자 한채아(35)가 전 축구 국가대표 차범근 감독의 아들 차세찌(31)씨와 관계를 친구에서 연인으로 번복했다. 지난 2일 열애설이 불거지자 친한 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8일 교제 중임을 인정했다.

한채아는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CGV에서 열린 주연 영화 '비정규직 특수요원' 언론시사회에서 차세찌씨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최근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직후 부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의 부모님이 유명하시고 저도 이름을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라 저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 입장차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영화에 피해를 끼치고 절 보호하고 싶어 했던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것 같다"며 "회사와 상의 없이 (지금)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하다. 그래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윤제문, 음주운전 물의 사과

배우 윤제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윤제문은 8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아빠는 딸'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이다. 당시 윤제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깊이 반성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없다. 저의 잘못 잊지 않고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지소울-민, 교제 4개월만에 이별

가수 지소울(29)과 여성그룹 미쓰에이 민(26)이 교제 인정 4개월 만에 헤어졌다. 두 사람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결별 사실을 발표했다. 같은 소속사에서 연습생 시절부터 동고동락해온 지소울과 민은 동료로 지내다 서로 힘든 시기에 의지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이들이 교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상수 감독-김민희, 13일 기자간담회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13일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다. 홍보대행사 무브먼트는 8일 "홍 감독과 김민희가 13일 오후 2시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리는 영화 언론시사회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지난해 6월 스캔들에 휩싸인 뒤 국내 공식석상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다정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 공유

공유, 도깨비 바람 타고 亞 점령 시동

4월29일 대만 시작으로 팬미팅 투어
'도깨비' 선판매 홍콩은 팬페이지 급증

공유가 아시아 점령을 시작한다.

영화 '부산행'과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그가 본격적으로 해외로 영역 확장에 나선다.

공유는 4월29일 대만을 시작으로 5월6일 홍콩 등 아시아 팬들과 만난다. 그가 해외에서 팬미팅을 여는 것은 2011년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투어 이후 6년 만이지만, 대만과 홍콩은 데뷔 후 처음이다. 당시 진행한 투어 이후 연기에만 집중해오다 끊이질 않는 해외 팬들의 요청과 달라진 입지 등을 고려해 직접 소통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현재 협의 중인 다른 지역도 있어 그의 방문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대만과 홍콩은 공유에게 특별하다. 대만은 2007년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공유에게 처음 관심을 드러낸 곳으로, 현지 매체들은 당시 국내 입국해 공유의 모습을 직접 담아가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송중기, 유아인, 박보검과 함께 '4대 천왕'으로 떠올랐다.

홍콩은 최근 팬덤이 형성된 곳이다. '도깨비'가 선판매됐고, 방송 중에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열기가 뜨거웠다. 방송 당시 현지 지하철 출입문과 의자 등에 공유의 얼굴이 도배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팬들 역시 급증해 공유의 팬페이지, SNS 계정 등이 수십 개가 개설됐다.

공유는 '도깨비'를 통해 중국에서 인기가 뜨거웠지만,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대만과 홍콩을 새로운 한류의 기점으로 정하고 입지를 굳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유는 해외 투어에 앞서 4월 중순 국내에서 바자회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유럽 팬들, 8개국 라디오에 신청곡 '방탄 띄우기'

방탄, 유럽 팬덤문화를 바꾸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유럽 팬들의 '무한도전'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 화제다.

방탄소년단의 유럽 팬클럽(유러피언 아미) 회원들은 방탄소년단의 현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나라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곡 '낫 투데이'를 신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포르투갈·루마니아·이탈리아·우크라이나 등 유럽 8개국 팬들은 5일부터 각국의 KISS FM에 '낫 투데이'를 신청곡으로 요청하기 시작했다. KISS FM은 유럽 여러 나라에 같은 이름의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각국 팬들은 각종 'BTS'(방탄소년단)에 해시태그(#)를 붙이는 '#BTSonKISSFM'을 SNS으로 확산시키며 온라인상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하루 만에 성과를 얻기 시작했다. 6일 독일의 한 회원은 차량 라디오에서 '낫 투데이'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영상은 현지 팬들 사이에 공유됐고 '신청곡 프로젝트'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스타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조직적 움직임은 한국 팬클럽 문화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해외에서 케이팝 가수를 위한 이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흔치 않은 사례다. 케이팝이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고 팬덤 문화까지 전파하고 있다는 사례로 평가된다.



방탄소년단

'낫 투데이'는 방탄소년단이 2월 발표한 2집 리패키지앨범 '유 네버 워크 얼론' 수록곡이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그룹 최단시간 유튜브 조회수 1000만회 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은 3월 남미를 시작으로 해외투어에 나선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KBS 예능, 올해는 축제의 해

15주년 '해투' 3주 걸쳐 특집 프로그램
18주년 '개콘'은 5월28일 900회 자축

KBS 2TV 대표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와 '개그콘서트'가 축제의 장을 펼친다.

'해피투게더'와 '개그콘서트'는 올해 각각 방송 15주년과 18주년을 맞았다. '해피투게더'는 9일부터 3주에 걸쳐, '개그콘서트'는 900회가 방송하는 5월28일 특집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자축한다.

'해피투게더'는 '레전드 리턴즈'라는 이름으로 15년 동안 인기 높았던 아이템을 깜짝 부활시킨다. 스타들이 초등학교 시절 친구를 찾는 '반갑다 친구야'를 재구성한 '프렌즈 리턴즈', '사우나 토크', '쟁반노래방'을 방송한다. 2007년 시즌2의 진행자였던 유진이 특별 MC로 참여한다.

1999년 첫 방송한 '개그콘서트'는 1TV '전국노래자랑'(1980)과 2TV '연예가중계'(1984)에 이어 세 번째 장수 예능프로그램인 동시에 최장수 코미디프로그램이다. 이런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제작진은 이미 18주년 겸 900회 특집 아이디어 회의에 돌입했다. 과거의 인기코너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코너를 빛낸 스타를 초대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해피투게더

두 프로그램은 화제성과 시청률 면에서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10년 이상 꾸준하게 '이름값'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예능프로그램들의 '생존'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 이들이 걸어온 과정은 경쟁자들에게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본보기가 된다는 평가다.

KBS 김진홍 예능국장은 "'해피투게더'와 '개그콘서트'는 방송사의 주중·주말을 대표하는 예능프로그램이어서 존재만으로도 상징성이 크다"며 "특집편을 통해 시청자에게 추억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책 랭킹

자료: 교보문고
2월 22일~2월 28일

1위 책 정보보기

순위	제목	작가
1	공터에서	김훈
2	자존감 수업	윤홍균
3	언어의 온도	이기주
4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김용택 (엮음)
5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설민석
6	완벽한 공부법	고영성
7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2	설민석
8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9	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10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편집 | 유진한·심승수 기자